

“추가 요금 내라”... 소규모 이사 피해 10명 중 7명 청년

30대 A씨는 지난해 작업인원 2명, 1t 화물차 이용을 조건으로 55만원에 이사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이사 당일 업체는 A씨와 상의 없이 작업 인원 1명, 1t 화물차를 추가로 동원하며 25만원의 추가 비용을 요구했고 A씨는 이사를 미룰 수 없기에 비용을 지급했다. 이사 후 A씨는 당시 동의 없이 이뤄진 추가 인원 및 차량 비용에 대해 전액 반환을 요구했지만 이 사업체는 일부만 반환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961건 중 241건...물품 파손·분실 가장 많아 계약 조건 확인·현장 점검 등 피해 예방 적극 나서야

소규모 이사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부실한 계약 체결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1인 가구가 비중이 높은 20~30대 청년층의 피해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3~2025년) 이사 화물 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총 2349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3년 603건, 2024년 785건, 2025년 961건으로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계약불이행이 50.4%(1183건)으

로 가장 많았고, 품질·A/S 33.0%(776건), 계약 관련 7.5%(176건), 가격·요금 1.9%(44건)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로는 30대가 36.4%(855건)로 가장 많았고, 40대 27.2%(640건), 50대 18.1%(425건), 20대 8.9%(208건), 60대 이상 8.1%(190건) 순으로 집계됐다. 20~30대 청년층 피해는 1063건으로 45.2%를 차지했다. 또 소비자들이 지난해 접수된 961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금액 100만원 이하의 '소규모 이사 서비스' 관련 피해는 241건으로 확

인됐다.

이중 20~30대 피해가 65.1%(157건)로 가장 많았다. 20대의 소규모 이사 피해 비율은 22.8%(55건)로 전체 이사서비스 이용자 중 20대 비율(11.6%) 대비 2배 가까이 높았다. 이는 1인 가구가 많은 청년층의 주거 특성상 소규모 이사 서비스 이용률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소규모 이사 관련 피해는 '물품 파손 및 분실'이 47.7%(134건)로 가장 많았고, '추가 비용 요구' 24.9%(70건), '이사서비스 이행 거부 또는 계약불이행' 13.9%(39건), '계약 취소·변경 시 과도한 위약금' 9.6%(27건) 순으로 확인됐다.

물품 파손의 경우 이사 과정에서 직원의 부주의 등으로 전자제품, 가구 같은 주요 물품이 파손됐음에도 이사업체가 책임을 인정

하지 않거나 원상회복 비용을 배상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또 이사비용이 크지 않다 보니 이사업체가 잔금을 포기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회피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추가 비용 관련 피해는 이사 당일 이사 집의 양이나 건물 구조 등을 이유로 화물차, 인력, 사다리차 등을 추가로 사용해야 한다며 갑작스레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때 소비자가 추가 비용 지급을 거부하거나 감액을 요구하면 이사업체가 이사 계약의 이행을 거부하는 '계약불이행'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도 많았다. 소비자가 정해진 날짜에 이사를 완료하지 못하면 관련한 상황이 발생하기에 추가 비용 요구를 거부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이밖에도 소규모 이사서비스는 방문 견적 없이 구두 설명이나 온라인 홈페이지에 입력한 이삿짐 현황을 토대로 비대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이 이 같은 분쟁에 더욱 취약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이사업체를 선정하기 전 허가 여부 사전 확인, 계약 체결 전 정확한 견적을 통해 차량, 인력 등 계약 조건 확인, 파손 우려가 있는 물품은 이사 전에 사진을 촬영하고 이사 후에는 현장에서 점검할 것 등 피해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을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신학기·입사 등으로 청년층 이사 수요가 많은 봄철에는 소규모 이사 관련 피해가 증가할 수 있어 청년 소비자들은 더욱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용성 기자 y01404@gwangnam.co.kr

광주·전남 대학들 '리서치 트라이앵글' 시동

GIST·전남대·켄텍, 심포지엄 과학기술 초광역경제권 구축

광주·전남 주요 대학들이 손을 맞잡고 지역 산업을 견인할 '한국형 리서치 트라이앵글' 구축에 본격 착수했다. 광주과학기술원(GIST)은 최근 옹골 관에서 전남대학교·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켄텍)와 함께 '전남광주 통합시대, 리서치 트라이앵글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3개 대학 간 연구 협력 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리서치 트라이앵글'은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의 리서치 트라이앵글 파크(RTP) 모델에서 착안한 개념으로, 대학·연구소·기업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세계적 혁신 클러스터를 의미한다. 이번 구상은 호남권을 반도체·인공지능(AI)·에너지 중심의 미래 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번 협력 모델은 전남대 이근배 총장이 제안한 것으로, 세 대학의 특화 연구 역량을 결집해 공동 연구와 인재 양성, 기술사업화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묶는 것이 핵심이다.

심포지엄에서는 반도체·AI·에너지 분야별 구체적 협력 전략도 제시됐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시스템 반도체 중심의 후공정과 패키징 설계를 강화하고, 인력 양성과 인프라 구축, 광산업과 실리온 기술 융합을 통해 서남권 반도체 생태계를 키워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AI 분야에서는 데이터 축적과 제도 개선을 통한 '피지컬 AI' 확산 필요성이 강조됐으며, 자율주행·에너지 인프라 등 다양한 산업과의 융합 전략도 제시됐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분산에너지 실증 클러스터 구축을 통해 전력망 기술을 통합 검증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핵심 과제라고 밝혔다. 이들 대학은 연구 협력의 실효성을 높



최근 광주과학기술원에서 열린 '전남광주 통합시대, 리서치 트라이앵글 심포지엄'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이 기회에 '앵커 기업' 유치가 필수적이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미국 RTP 사례에서도 IBM이 중심 역할을 맡아 산업 생태계를 견인한 만큼, 호남권 역시 대형 기업 유치가 관건이라는 분석이다.

이근배 전남대 총장은 “광주·전남이 하나의 지능형 경제권으로 도약하는 전환기에 있다”며 “리서치 트라이앵글이 국가 경쟁력을 견인하는 핵심 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진호 켄텍 총장 직무대행은 “연구

·사업화·창업을 아우르는 새로운 성장축을 만들어야 한다”며 “에너지 인재와 창업 벨리를 중심으로 국가 에너지 정책에도 공동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임기철 GIST 총장은 “이번 심포지엄은 지역 대학 간 상생 협력의 출발점”이라며 “연구 협력을 넘어 기술사업화로 이어지는 실질적 성과 창출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인수 기자 joinu@gwangnam.co.kr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

웹툰 인재 양성으로 K-콘텐츠 성장 이끈다

콘진원, 내달 초까지 118명 선발... 전문가 지도 등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다음달 초까지 웹툰 작가 양성 사업에 참여할 교육생 118명을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예비 창작자 발굴부터 시 장 진출까지 연계 지원해 웹툰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창작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웹툰 작가 양성 사업은 '지역 기반형'과 '소수 정예형'으로 운영된다. 지역 기반형은 지역 웹툰 인재 발굴과 창작 역량 강화

를, 소수 정예형은 창작자 중심의 오리지널 웹툰 지식재산(IP) 발굴이 목표다.

이번 사업은 웹툰 작가 데뷔를 희망하는 예비 창작자뿐만 아니라 차기 작품 제작에 어려움을 겪는 신진 작가까지 폭넓게 지원한다. 선발된 교육생은 약 6개월간 교육과정에 참여하며, 현업 전문가의 1대1 맞춤형 지도를 통해 작품 기획부터 이야기 구성, 작화 등 창작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받는다. 나주=조현진 기자 pose007@

5극3특 연구개발특구 딥테크 지원 본격화

내달 21일까지 추진사 모집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지역 균형 발전과 딥테크 기반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해 '5극3특 연구개발특구 딥테크 지원 사업'을 신규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단절 없는 기술사업화 전방위 지원'을 목표로 기획형 창업지원(1단계)부터 초기 스케일업 지원(2단계)까지 연계되는 투트랙 체계로 운영되며, 추경예산 60억 원이 투입된다.

1단계에서는 출연연과 대학 등 공공연

구기관을 중심으로 투자·보육 등 분야별 민간 전문가 그룹이 함께 참여해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딥테크를 발굴한다. 이를 바탕으로 총 40여개 예비창업팀을 구성하고, 비즈니스 모델 고도화 등 창업 전 과정을 중점 지원해 창업을 이끈다. 2단계에서는 총 16개 내외 딥테크 기반 초기 스타트업의 기술 고도화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다음달 21일까지 모집한다. 사업 공고 및 세부 내용은 특구재단 누리집(www.innopolis.or.kr) 또는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은지 기자 eunzi@

광남일보 골목상권 활성화 연중캠페인

광주·전남의 골목경제가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골목경제는 지역공동체의 뿌리이자 상생경제입니다.

주인과 상인이 상생 협력으로 소비자에게는 할인혜택이 주어지고, 상인은 매출 증대 효과를 얻은 선순환 구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통시장 중심으로 사용처가 제한적이었던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해지면서 골목형 상점가가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광남일보는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연중 캠페인을 통해 지역상권의 활력을 불어 넣도록 힘을 보태겠습니다.



전남대 후문 공동 마케팅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이 경품 돌림판을 돌리고 있는 모습



전남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온누리상품권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